



NOKIA
banners inside

BIC 주식

나는 점심값을 냈다. 35유로. 망설임 없이.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가 하나 있었다: 그 자리의 어떤 여자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한 만남의 끝의 시작에 불과했다.

센강을 따라 걷는 동안 그들은 여기저기서 떠보는 질문을 계속 던졌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한 사람씩, 손을 잡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곳으로 데려갔다.

나는 그들에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가장 높은 언덕 위에 말과 함께 서서, 자신이 어떻게 이길지 지켜보며 적들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던 이야기를 아느냐고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프랑스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탈리아 침입자에 불과했다. 아하하하하.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우리는 카페 앞에 앉아 모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는데, 가장 노련한 여자가 마침내 입을 열어 첫 번째 진짜 질문을 던졌다.

팽이 놀이는 끝났다. 이제 모두가 땅으로 돌아와 있었다. 가면 없이 듣고, 이 게임이 어떻게 끝날지 이해할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모두를 대표해 내가 초대를 받아들인 데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다. 결국 이 만남의 결과를 남편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나는 BIC COMPANY WORLDWIDE의 뛰는 심장을 빌려 갔고, 그것도 단돈 35유로로 그렇게 했으니까.

Chanel은 한쪽에 비켜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놀란 듯했고, 내가 정말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나중에 그녀는 나 같은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고백하게 된다.

“제 생각에는,” 그 부인이 말했다. “당신의 능력을 생각하면, 우리 남자들을 모두 합쳐도 당신 역량의 4분의 1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글에 쓴 그대로 — BIC에 대한 공개매수를 — 정말 해낼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제 질문은 이거에

요: GILLETTENARRATIVE.COM을 얼마에 파시겠어요? 약속드리죠. 24시간 안에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이든 주식이든 원하시는 곳에 넣어 드리겠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왜 제 웹사이트를 원하십니까?”

대답은 즉시 돌아왔다. “우리는 APPLE 웹사이트 안에 NOKIA 배너를 걸고 싶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분명한가요? Frega 씨, 우리가 당신 사이트를 얻기 위해 어디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는지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잃지 않고 계속 살아가려면 꼭 필요해요. 우리가 연 매출 30억 달러를 올리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영업 이익률은 언제나 두 자릿수였어요. 전 세계로 엄청난 양의 제품을 옮겨야 하는 회사들이 지는 브랜드 유통 비용이 우리에게서 없어요. 우리의 손익 구조는 세 자릿수 영역에서 움직여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말을 멈추고 말했다. “끝없는 대화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제안을 하나 드리죠.”

그리고 그녀는 제안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거절하지 않을 그런 제안을.

그러나 나의 대답은 이것이었다. “제 책은 1달러도 내지 않고 무료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GILLETTE 안에서 보낸 가족의 58년의 존엄을 단지 돈으로 가져가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보는 모든 것. 제가 쌓아 온 모든 것. 전부. 그 가치는 미국 달러 1달러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1달러를 오직 저의 어머니에게만 드릴 겁니다. 그 래야 마땅하니까요. 아들은 결코 어머니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그녀의 아들로 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녀에게 무모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호텔까지 내려다줘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고맙다고 하고 거절했다. 작별 인사를 하고 걸어서 떠났다.

하지만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 그들의 경호팀을 따돌려야 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파리 지하철에서 세 시간을 보낸 끝에 그들은 나를 놓쳤다. 지쳤다. 포기했다.

그리고 나는 인도 사람들과 브라질 사람들 사이의 공용 방으로 돌아갔다. 언젠가 내가 알현을 허락해야 할, 더 위대한 신의 아들이로서. 아버지가 결국 자신이 가진 가장

못난 아들에게도 알현을 허락하듯이.

Ferdinando